

박찬일의 '밥 먹고 합시다'



전복 이야기

전복이 흔해졌다. 아니, 흔해진 지 오래다. 예전에 대풍이 와서 양식 주산지인 완도 일대가 뒤집어지는 가슴 아픈 피해를 본 때에도 전복 값이 그리 엄청 비싸지는 않았던 것 같다. 우리나라가 전복 양식 연구에 들어간 건 1972년도라고 한다. 오래전 일이다. 이런저런 고초와 실패가 많았을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값이 많이 싸지더니, 2천 년대 들어서 크게 낮아졌다. 가격 하락에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 전복은 자라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예전에 내륙에서 기르는 전복 양식업장을 기본 적이 있다. 깨끗하게 청소 잘해야 하고, 조용히 해 줘야 한다. 전복은 소리에 도 민감하다. '시끄러우면 새끼도 안 만든다'며 양식장 주인은 혀를 찼다. 다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살아 안 쫓인다. 가만히 수조를 보는데 날래기가 등 푸른 생선 같다. 가만히 누워 있을 것 같은데, 뜻밖이다. 사람 발소리를 알아듣고, 먹이 주러 오는 건지도 기막히게 알아챈다고 한다.

전복은 바다의 산삼이라거나 동물성 불로초라고도 한다. 장수나 건강에 전복이 빠지지 않는다. 제주목사가 부임하면 제일 큰 근심이 전복 전상이었다. 특히 가령주구가 심해진 조선 후기에 가령 제주 사람들은 전복 때문에 유민이 되곤 했다. '할당량'을 정해 놓고 독촉을 해 대다가 가두어 매를 치는 일도 잦았다.

중앙정부에서 온 관리야 현지 사정을 알더라도 양을

못 맞춰 보낼 수는 없는 일이었다. 진급이나 물으로 발령을 받고, 최소한 자리보전을 해야 하니까 그랬다. 그러니 전복 잡는 양민들-해녀뿐 아니라 남녀의 구별 없었다-이 지도관을 당했다. '해남'(海男) 대신 '해녀'(海女)가 많아진 것도 전복 잡는 남자들이 가령주구에 학을 때어 도망쳤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복은 버릴 것이 없다. 삶은 살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썼다. 전복이 귀할 때는 시중에 '진짜 전복죽 감별 방법'이 인구에 회자되곤 했다. 죽 색깔이 녹색이 아니라 면 가짜라는 거다. 소라살로 끓인 죽이라는 뜻이었다. 전복 내장이 푸르스름하여 같이 끓이면 녹색이 나오는 걸 염두에 둔 얘기였다. (정작 소라로도 푸르게 끓일 수 있다고 한다. 미역을 갈아 넣거나 소라 내장도 푸른빛을 띠기 때문이라.)

껍질도 버릴 게 없었다. 한의학의 바이블인 '본초강목'에 '늘이 멀 병이 걸려도 전복껍질로 고칠 수 있다'고 나온다. 전복껍질의 별칭이 석결명인 것은 이런 까닭이다. 완도의 어느 전복회사에서 껍질과 결명자 등을 섞어 드링크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것도 이런 근거에서 나온 일이다. 전복은 중국과 일본에서도 아주 인기 있다. 일본에 갔더니 요릿집에서 파는 전복에 '한국산'이라고 써 놓았다. 전복 양식 기술은 한국이 최고이기 때문이다.

홍콩은 말린 어묵의 집산지다. (그들 말로는 건화(乾貨)라고도 부르는데 '말린 돈'이라는 뜻이다.) 생선의

부레, 삭스핀 같은 날개, 가리비, 해삼, 전복의 말린 것이 많이 유통된다. 말린 것은 과거에 냉장 기술이 없을 때 선택한 방법이었다. 한데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품질과 맛을 좋게 해 준다는 걸 알게 되었다. 말린 해삼과 전복을 물에 불리면 특이한 맛과 감촉이 생긴다.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 더 보태 보자. 삼국지의 조조도 즐겼고 진시황도 장복했다고 한다. 내륙이니 한겨울이 아니라면 아마도 말린 건화를 먹었을 것이다. 우리가 아는 중국요리 중에 제일 귀하고 비싼 건 불도장이다. 스님도 담을 넘을 만큼 맛있는 뜻이라고 한다. 이 요리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팔면서 소문이 났다. 전복이 들어가야 하고, 기왕이면 말린 걸 불려서 써야 더 좋다고 한다.

전복이 흔해지면서 전복라면도 나왔다. 떡볶이에 전복을 넣는 것도 봤다. 대개 아주 작은 걸 쓴다. 시절이 이렇게 바뀌었다. 크게 키운 전복은 아직 비싸다. 전복 요리가 다채롭지 못한 것도 생산자들에게는 미래를 담보하기 어려운 부담이다.

전복이 더 싸져도 좋겠다. 단 더 많이 우리가 소비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생산자들도 손해가 없다. 오늘은 시장에서 장을 봐서 중간지로 여덟 마리를 4만 원에 샀다. 전복점과 회를 먹었다. 이만 한 돈으로 이런 호사는 못 누리리.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옛날 임금님들도 수송 거리가 길어 활 전복은 못 먹었다가 않은가.)

(음식칼럼니스트)

의료칼럼

중이염이 뭐예요?



김동규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중진의원 원장

중이염에 걸리면 소리 전달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안면 마비까지 유발하기도 한다. 각종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귀는 겉에 보이는 귓바퀴와 귓구멍까지를 외이(바깥귀), 고막부터 달팽이관 뼈까지의 공간을 중이(중간귀), 달팽이관보다 뇌에 가까운 안쪽을 내이(안쪽귀)라고 부른다. 중이염은 공기로 채워진 고막 안쪽 중이 공간 내의 점막과 뼈에 생기는 염증이다.

중이 공간에는 망치 모양 혹은 종 모양의 작은 뼈가 있는데, 이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소리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고막의 떨림을 달팽이관으로 전달해주는 소리 증폭기 역할을 한다. 중이에 염증이 생기면 이런 소리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서 소리가 작게 들린다. 표정을 만들어 주는 안면 신경도 중이의 뱃속을 지나기 때문에 심한 중이염은 얼굴 한쪽이 움직이지 못하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안면 신경은 단순히 눈이 안 감기고 입 모양이 뻣어지는 등 얼굴 근육 움직임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눈물, 침샘의 분비, 혀의 맛,

큰 소리로 인한 내이 손상을 차단하는 효과도 사라지게 된다. 중이 보다 더 안쪽에는 달팽이관 말고도 전정이라는 몸 균형을 잡아주는 센서가 있다. 따라서 심한 중이염이 깊은 속귀까지 침범하면 어지러움증이 심해진다.

귀는 밖으로 돌출되어 있지만 중요한 구조물은 귓구멍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비인후과에 가면 현미경이나 내시경으로 고막을 확인할 수 있어서 중이염 여부를 쉽게 진단할 수 있다. 중이염은 고막 안쪽 점막의 염증 때문에 고막이 붉게 보이고 통증과 열을 수반한 급성 중이염, 중이 점막의 염증으로 인한 액체가 채워져 수영하다 귀에 물들어갔을 때처럼 먹먹하게 들리는 삼출성 중이염, 그리고 고막에 구멍이 나고 누런 고름이 흘러나오며 청력이 떨어지는 만성 중이염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급성 중이염은 증상과 눈으로 고막을 보는 것만으로 진단이 되어 초기에 진단이 용이하고 어린이들에게서 흔히 생긴다. 항생제에 반응이 좋아 비교적 치료가 잘되는 편이다. 반면에 삼출성 중이염은 고막에 채워진 염증액을 없애는 것이 치료이므로 약 한 달간의 투약으로 말려 본다. 하지만 반응이 없으면 고막에 주사기로 물을 빼내거나, 고막 마취를 하고 고막을 찢거나, 환기관이라고 부르는 조그만 튜브를 고막에 박아 넣어 공기가 튜브를 통해 중이 점막에 직접 닿도록 하여 중이 점막을 말리는 수술을 하기도 한다.

중이염이 더 진행되고 오래 지속된 경우는 아무래도 급성 중이염이나 삼출성 중이염 단계를 지나 누런 고름이 나오는 지경에 이르게 되므로 냄새도 나고 가렵기도

하고 잘 안 들리고, 혹은 이명이 심하게 느껴진다. 가장 진행된 형태의 중이염은 진주종성 중이염으로 일종의 중앙성 질환이고 뼈를 녹이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심한 합병증이 생기기도 하는데 안면 마비, 어지럼, 심한 두통 등이 생길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의 의료, 위생 및 경제 관념이 좋아지면서 대표적 후진국형 염증성 질환인 만성 중이염의 빈도 자체가 감소하고 따라서 합병증도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인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예전의 중이염 수술은 거대한 현미경으로 귀뼈의 염증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였다. 하지만 이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력을 최대한 보존하거나 개선하면서 최소한의 침습적 수술을 요구하는 경향이 짙어져서 최근에는 내시경 귀 수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비침습적이라는 것이 치료 기간도 짧고 더 간편해 보이지만 치료가 가능한 범위로만 따지면 예전부터 해왔던 현미경 수술과 비교해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숙련된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다면 요즘 이비인후과 외래에서 만날 수 있는 대부분의 귀 질환에서 적용이 가능할 정도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환자들에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한 번의 중이염 수술로 귀에서 생기는 모든 증상이 없어지느냐는 것이다. 물론 염증으로 인한 증상들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다. 하지만 청력 신경은 재생되는 신경이 아니므로 오랜 염증으로 이미 변화가 왔을 가능성이 높고 수술로 염증을 제거한들 청력 회복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기고

장미꽃보다 아름다운 소녀였던 할머니들



최성훈 육군보병학교 교관

곱디고운 자태의 할머니를 처음 뵈 낯은 벅빳없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던 따스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이고 나이는 여든 일곱 살, 김복동입니다." 나눔의 집을 방문한 우리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 느꼈던 먹먹함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가슴속 생채기가 되어 아픈기만 합니다.

1926년생인 할머니는 불과 열네 살의 나이에 일본군에 의해 낯설고 물신 곳으로 끌려가 여성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으셨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속에 아무 걱정 없이 뛰어놀기에도 부족한 나이의 이 어린 소녀는 할머니가 되어 일제의 만행을 폭로했습니다. 위안부라는 일종의 금기어를 애써 외면하고 살던 우리 사회에, 더욱이 성폭력 피해 여성이 더 큰 피해 의식을 안고 살아간던 그 시절에, 내가 위안부라고 말하기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결혼을 하셔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 손자 본 분도 계시는데, 그 손자 앞에서 '내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위안부였다'라고 말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는 "우리가 강요에 못 이겨 했던 그 일을 역사에 남겨 두어야 한다"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에 의해 강요된 위안부 생활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한국인 최초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1991년 10월에 MBC 문화방송 창사 30주년 기념 특집극으로 방송된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는 애써 외면하던 위안부 문제를 우리 사회의 공론장으로 이끌어 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군에 의해 강제 채취된 위안부로 끌려가는 역으로 열연을 보여 준 배우가 채시라씨였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뜻있는 시민사회가 서을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처음 한 날이 고 김학순 할머니의 기자회견 다음 해인 1992년 1월 8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시위는 한여름 무더위에도, 한겨울 동장군의 위세에도, 웃이 흠뻑 젖는 폭우에도 불구하고 매주 수요일이면 같은 장소에서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2022년 올해는 수요일이 열린 지 30일이 됩니다. 이 수요일에는 지금까지 모두 1525차례, 단일 주제의 최장기 시위로 기네스북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것은 경제적 보상이 아닌 일본 정부의 진정 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일본은 오히려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이제 생존자는 13명뿐입니다. 사과하지 않는 일본은 어쩌면 이분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그로 인해 수요일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존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공식 직함은 '일본 법학 미쓰비시 교수'로 어려서부터 일본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았으며, 일본어로 책을 출판했다.)는 "위안부 강제 징용은 거짓이고 입증 문서가 없다"는 망언을 하며,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합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 우리 모두는 할머니들의 아픔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추신: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곱게 머리를 빗어 내리시고, 몇 벌 되지 않으나 웃음에 가장 깨끗하고 정갈한 옷을 골라 입으시던 김복동 할머니는 2019년 94세로 영면하셨습니다. 2015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을 받으셨습니다.)

社說

또다시 무너진 안전, 아파트 어떻게 지었길래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고층 외벽이 무너지며 작업자 여섯 명이 실종됐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7개월 만에 광주에서 또다시 대형 사고가 터진 것이다.

사고는 그제 오후 해당 아파트 201동 38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붕괴가 시작돼 23층까지 벽체 구조물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현장 작업자 여섯 명이 연락 두절됐고, 세 명은 부상을 입었다. 특히 붕괴 건물 옆에 설치된 높이 140m의 타워크레인이 20도 이상 기울어져 추가 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근 주민들에게는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사고가 콘크리트 양생 불량이나 철근 시공 하자 등으로 인한 부실시공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겨울철에는 콘크리트가 굳는 기간을 고려해 3주~4주에 한 층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 곳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1주일에 한 개 층씩 올렸다는 현장 작업자의 증언도 나왔다.

주민들은 무엇보다 사고 아파트의 시공사가 불과 7개월 전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부른 학동 4구역 재개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라는 점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굴지의 대기업이 안전은 도외시한 채 이윤만을 쫓아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다는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잇단 사고로 광주의 이미지에도 먹칠을 하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실종자들을 조기에 찾아내는 것이다. 안전상의 이유로 일시 중단됐던 수색 작업이 어제 낮부터 구조견과 드론을 이용해 재개됐는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들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아울러 더 이상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공공보호' 강화해야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아동학대 실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관심은 물론 사회안전망과 공공보호 체계 강화가 절실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면수업 재개 이후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1010건에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743건(73.6%)이었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 227건, 신체적 학대 115건, 방임 43건, 중박 32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고 건수 기준으로 전년도인 2020년 858건보다 17% 증가한 수치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139건, 1089건이었다.

이처럼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방역이 한때 완화되면서 대면수업이 늘어난 것과 무관치 않다. 2020년의 경우 아이들이 집에 머무르는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신고 건수가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평균 연령이 늘어난 데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업인이 사건'으로 시민들의 신고 의식이 높아진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근 광주시는 보호가 필요한 학대 아동들의 공적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내로 기종영보호소 1곳과 학대피해 아동쉼터 2곳, 일시보호소 1곳 등을 확충하기로 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모름지기 아동학대는 신체와 정신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따라서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시민들의 신고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더욱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학대는 없는 만큼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아동 보호를 위한 공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하이든의 '트럼펫협주곡' 3악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곡이다. 나이 지긋한 세대는 이 곡을 들으면 곡명(曲名)은 몰라도 곧장 MBC '장학퀴즈'의 추억으로 빠져들 터이다. 반면 초등학교생들은 유재석이 선전하는 학습지 광고를 떠올리지 않을까. 최근 '간부 할아버지' 오영수의 골든글로브 수상으로 화제가 된 '오징어 게임'을 재미있게 본 사람들이라면 도전자들을 깨우던 '기상 음악'으로 기억할 듯하다.

클래식 음악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속에서 친숙하게 만날 수 있다. 모

전자회사의 세탁기 종료음은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 송어' 중 4악장에 나오는 유명한 멜로디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음악의 첫 소절이 울려 퍼지면 모두 "아하, 그 음악이구나"라며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지난해 말 KBS 클래식 FM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클래식 1위는 베토벤의 '피아노협주곡 5번 황제'가 차지했다. 5위 안에는 차이콥스

키, 라흐마니노프, 쇼팽의 '피아노협주곡'과 비발디의 '사계'가 포함됐다. 첫 조사였던 1982년에는 베토벤의 교향곡 '합창'이 1위를 차지했다. 2009년과 2016년에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월광'과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2번'이 1위에 올랐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신년 계획을 세우며 새해를 준비한다. 혹시 올해 클래식 음악에 한 번 도전해 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길라잡이 삼아도 좋을 것이다. '종합 100위 순위'와 협주곡이나 성악곡 등 장르별 '20위 순위'는 '생생클래식'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다. 요즘에는 음반을 구입하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다양한 연주자의 음악을 들을 수 있고 강연도 많으니 클래식과 친해지기 훨씬 쉬운 환경이다.

나의 클래식 입문곡은 우연히 들었던 블프 페라리의 '성모의 보석' 중 '간주곡'이었다. 지금도 이 곡을 들을 때면 학창 시절의 그때로 돌아가는 듯해 감회가 새롭다. 올해, 모두들 클래식과의 '멋진 첫 만남'을 만들어 보시길.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汝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남본부 220-064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